

특강 II (Special Lecture II)

New Paradigms in Dental Practice

박인출 원장
예치과의원



'Paradigm'이란 용어는 1962년 Thomas Kuhn이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사용한 이후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라는 개념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특히,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최근 변화의 시대에 자주 언급되고 있다.

Thomas Kuhn에 의한 paradigm의 정의는 '어떤 시기의, 어떤 과학자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공통적 전제이다. 그에 의하면 과학의 발달은 수세기에 걸친 과학자들의 연구업적이 쌓여 이루어진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결과가 아니라 과학혁명의 결과라는 것이다. 두 개의 paradigm은 공존할 수 없으며 절충도 가능하지 않다. 천동설과 지동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으로 간주된다.

세상은 무척 빠르게 변하고 있다. Microsoft사의 Bill Gates는 그의 저서 '빛의 속도'에서 향후 10년 동안에 과거 50년보다 더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사람들의 관념, 제도, 기술, 제품 등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 치과계도 예외라 할 수 없다. 치과계에도 새로운 paradigm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우리가 새롭게 생겨난 new paradigm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old paradigm들에 집착하고 머물러 있으면, 전문직업인으로써의 성공도 어려워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도 어렵게 된다.

이렇듯 paradigm이란 올바르게 인식하고 활용하면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매우 유익한 개념이지만, 반대로 과거의 paradigm에 집착하여 새로운 paradigm에 적응하지 못하면 paradigm은 개인을 속박하고 스트레스에 빠지게 만든다.

치과계에 새로 대두된 'New paradigm'들에 대하여 치과의사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활용해야 하는가를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약력

1971년	서울고등학교 졸업	1987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 박사학위 취득
1977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90년	미국치과 교정학 전문의 자격 취득
1981년	미국 시카고 Loyola치대 교정치과 레지던트 과정 수료 및 석사학위 취득	1992년-현재	예치과 의원 대표원장
1983-1985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조교수	1993년-현재	메디소프트(주) 대표 이사

저서 및 역서

'치료전략과 매니지먼트' (1999, 지성출판사) '환자도 고객이다' (1996, 창현출판사)
'생각의 정원 가꾸기' (역서, 1999, 도서출판 물푸레)